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에 의한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평가

김 춘 미¹⁾ · 김 은 만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습득한 이론적 간호지식을 임상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창조해내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간호학생들이 병원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에서 행해지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가진 신규간호사의 양성에 최종 목적이 있으므로 임상상황에서 서로 연계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Cope, Cuthbertson & Stoddart, 2000).

그러나 현재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실은 실습공간의 부족, 기자재의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김종임, 임난영, 김금순, 2003) 및 대부분의 실습운영이 실습실에서 모형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간호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문제점(변영순, 2005) 등 해결해야 할 실습환경의 문제점과 다수의 간호학생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실습교육에 임한다(한경순, 박은희, 조주연, 2000)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별로 자율실습(홍승희, 권영숙, 2010), 문제중심학습(이경희, 2001),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유문숙 등, 2002), 비디오 녹화학습(윤은자, 1999), 웹기반 학습(남미라, 2005; 조복희,

고미혜, 김순영, 2004), 시뮬레이터 활용학습(주민선, 황윤영, 박창승, 2006)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본간호 실습교육을 받은 후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는데, 임상실습교육은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학생이 습득한 이론교육과 간호술기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으로 실습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 의사소통능력, 시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Löfmark & Wikblad, 2001). 하지만 환자간호에 필요한 기본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임상실습에 임하는 간호학생들은 자신감 상실(김혜숙, 2002),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윤은자, 1999). 아울러 임상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은 물론, 임상의 새로운 환경과 예상치 못하는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Mahat, 1998). 또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직접 간호술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제한되는 등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다. 그 결과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황성자, 2006).

간호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자신감을 설명해주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과 신념인 자신감과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택하

주요어 :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1) 선문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김은만 E-mail: emkim@sunmoon.ac.kr)

투고일: 2011년 6월 20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22일

는 난이도 선호 및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조절로 구성되는데(Bandura, 199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학습과정이 실제 전문인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학습동기를 높이고(신은주, 2008), 새로운 학습과제에 대한 도전과 노력 및 자기조절학습을 유도하고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높인다(안은경, 2000).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의 보유 및 실무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습교육의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기 및 임상실습경험의 부족은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저하와 관련되어 간호교육의 우선적인 관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 이에 임상 간호지도자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규간호사들도 기본간호술 수행능력 및 자신감이 낮아 간호업무에 임하기 전 막대한 채원과 시간을 들여 재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기본간호술을 비롯한 지식과 태도교육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정임, 2003). 또한 조미영(2010)은 기본간호실습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환경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임상상황에서 학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 학생들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간호 실습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임상상황에 보다 잘 적응하고, 대상자를 충분히 이해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으로서 실제성(authenticity)과 상황성(contextualization)이 강조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재학 중 어떤 점에 더 비중과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학생들이 전공별 임상실습으로 진입하기 전에 2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기본간호 지식 및 술기를 실습실이 아닌 임상현장에서 적용해보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분석함과 동시에, 실습교육 전후의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기본간호 현장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적 및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 현장교육을 시행하면서 수행한 기본간호술 빈도를 파악한다.

- 기본간호 현장교육을 시행한 후 간호대학생의 교육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양적도구를 이용해 조사한다.
- 기본간호 현장교육을 시행한 후 내용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실습경험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대상자는 충청 지역에 소재한 S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로 기본간호학 실습과정을 마친 뒤, 200-500명상 규모의 경기도 지역의 3개 병원과 충청 지역의 2개 병원에서 4주간 기본간호 현장교육을 수행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이란 하나의 연구현상을 연구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연구방법의 사용으로 완전성과 정확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은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 혹은 연구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담과 참여자 관찰과 같은 비구조적인 기술과 함께 표준화된 설문지나 관찰과 같은 구조적 기술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Denzin,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한 원시실험설계로서 4주간의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시행 전후 자기효능감을 양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기본간호 현장교육에 대한 총체적 경험에 대해서는 개인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가지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 양적 자료수집 도구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용한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3문항,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17문항으로 모두 20문항의 설문지이다.

- 일반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계획한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Bandura, 1993)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5점 척도 1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영희(1994)가 변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희(199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질적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질적자료수집은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한 후 2010년 8월 12일에서 20일까지 개인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병원에서 기본간호 현장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면담질문으로는 “실습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실습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병원에서 직접 간호사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병동 간호사들의 어떤 태도가 실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의 기본간호실습과 병원실습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이 포함되었다.

기본간호 현장실습은 교과과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본간호 실습과목을 이수한 후 회담자에 한해서 실습병원에 배치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을 위한 윤리적 고려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담내용은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연구결과가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약 1시간 이내로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모두 박사 과정에서 질적연구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마쳤으며,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 질적자료 분석 등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고, 질적연구

에 의한 학위논문 및 다수의 논문들을 수행해왔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자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읽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구를 따로 표시하며 코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드 중에서 상호연관된 코드들끼리 묶어 보다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범주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와 총체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범주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끼리 분석된 개념이나 범주의 명칭과 추상성의 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 양적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습선택이유, 및 실습내용은 빈도 및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교육전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원 자료로부터 중요하고 긴밀한 사례, 주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복잡한 자료들을 의미있고 다루기 쉬운 주제나 범주로 조직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이 분석방법의 목적이다(Patton, 2001).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면서 명명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현장실습 선택이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purpose for clinical practice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Female	20	100.0
	Male	0	0.0
Age	20	2	10.0
	21	16	80.0
	22	2	10.0
Purpose of doing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	To solve the curiosity of clinical setting	7	35.0
	To improve fundamental nursing skills	11	55.0
	To get a spec	2	10.0

학과 2학년 여학생 20명이었다. 연령은 20세, 22세가 각각 2명이었고, 21세가 16명이었다.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선택한 사유는 ‘기본간호 술기의 향상을 위하여’가 5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임상(병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가 35.0%,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가 10.0%로 나타났다.

기본간호 현장실습내용

기본간호 현장실습을 위하여 5개 병원에 분산되어 실습한 간호학생들에게는 병원에 협조를 구하여 8개 항목에 해당되는 기본간호술을 공통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들은 4주간의 현장실습 동안 침상만들기, 혈당체크, 활력징후 측정과 환자보행보조 및 관절범위 운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구강간호는 60.0%, 침상세발은 40.0%만이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기본간호 현장실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 현장실습 교육 전·후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비교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자기효능감은 현장교육 전·후 각각 3.88점, 3.76점으로 현장교육 후 유의하게 낮아졌다($t=3.52, p=.003$). 이를 항목별로 살펴 보면, 전체 17문항 중 15문항은 현장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한다’의 항목은 현장실습 교육 후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나는 일을 해내는 내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는 현장 실습 교육 후 유의하게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한 기본간호 현장실습 경험

면담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2학년 간호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은 7개 범주와 22개의 개념이었다<Table 4>. 도출된 7개의 범주는 ‘무지한 이방인’, ‘이론과 실무의 괴

<Table 2> The frequency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tems	Person who had experience(n)	%
Bed making	20	100.0
Oral care	12	60.0
Shampooing	8	40.0
Blood sugar test check	20	100.0
Vital sign check	20	100.0
Positioning, Transferring from bed to wheelchair	20	100.0
Assisting with moving and positioning	20	100.0
Range of motion	20	100.0

<Table 3>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between pre and post nursing practice

Items	Pre-test	Post-test	t(p)
	Mean ±SD	Mean ±SD	
When I make plans, I am certain I can make them work.	4.24±0.63	4.10±0.58	0.81(.430)
I can get down to work when I should.	3.26±0.88	3.13±1.15	0.57(.579)
If I can't do a job the first time, I keep trying until I can.	3.54±0.64	3.54±0.89	0.00(1.00)
When I set important goals for myself, I achieve them.	3.83±0.80	3.48±0.81	2.56(.020)
I don't give up on things before completing them.	4.03±0.69	3.68±0.91	1.57(.135)
I don't avoid facing difficulties.	3.89±0.95	3.83±0.80	0.27(.790)
If something looks too complicated, I will bother to try it.	3.96±0.99	3.89±0.73	0.29(.772)
When I have something unpleasant to do, I stick to it until I finish it.	3.96±0.64	3.68±0.80	1.46(.163)
When I decide to do something, I go right to work on it.	3.40±0.94	3.40±0.84	0.00(1.00)
When trying to learn something new, I don't give up if I am not initially successful.	3.89±0.85	3.61±0.85	1.29(.215)
When unexpected problems occur, I handle them well.	3.54±0.89	3.54±0.89	0.00(1.00)
I don't avoid trying to learn new things when they look too difficult for me.	4.03±0.81	3.75±0.74	1.72(.104)
Failure just makes me try harder.	3.61±1.13	3.26±0.98	1.23(.236)
I feel secure about my ability to do things.	3.89±0.95	4.45±0.64	-3.06(.007)
I am a self-reliant person.	4.38±0.78	4.30±0.64	0.37(.717)
I don't give up easily.	3.89±0.73	3.68±0.68	1.14(.269)
I seem capable of dealing with most problems that come up in my life.	4.59±0.61	4.59±0.61	0.00(1.00)
Average score	3.88±0.38	3.76±0.34	3.52(.003)

<Table 4> Concepts and categories related to student's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Categories	Concept
Ignorant stranger	- Unfamiliarity - Ignorance - Trying to read one's face
Fac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Perplexity - Being daunted - Being in confusion
Resolving the uncertainty of clinical setting	- Complying with nurses's order - Coarse reality that is difficult to stick to the rules - Skepticalness about complying with rules
Getting used to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 Vague fear - Being accustomed to hospital circumstance - Familiarity
Motivated by a desire to study and self-development	- Trial and error - Confidence - Sense of accomplishment
Understanding the nursing profession's job	- Becoming aware of inadequacy - Feeling keenly the necessity of studying - Determination to improving professional competence
Being helpful for the future career	- Vocation for nursing profession - Recognizing qualification of proficient nurse - Planning the future - Introspection about aptitude for nursing

리에 직면함’, ‘임상현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기본간호술에 익숙해짐’,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구체화’, ‘진로모색에 도움이 됨’ 등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간호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병원실습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생소하여 마치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다. 4주간의 실습이 참여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으며, 무척 긴장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습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7개 경험의 범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지한 이방인

참여자들은 낯선 병동에 배치되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웠다. 간호사들도 낯설었지만 처음 만나는 환자나 보호자들도 너무나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기본간호학을 제외한 전공과목을 많이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나 간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두려웠으므로 그저 간호사들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 병동의 간호사들이 특별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병동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부담을 주는 존재들인 것 같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위축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앉아 있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식사시간과 간호사들을 따라 다니면서 관찰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서있다고 하여 심한 다리통증과 체력적 고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임상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매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 분들에게 짐덩어리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질감 소외감과 동시에 제 자신이 무척 작고 하찮게 느껴졌고 위축되고 침체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차딩할 때 그냥 서있어야 하나 아니면 앉아서 쉬어도 되나 하는 고민에 많이 눈치를 봐야 했던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붓고 무릎이 아파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죠”

한편, 참여자들은 막연하게 자신들이 아직 2학년이라 아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노출되어 보니 정말로 무지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들이 대화하거나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조차 이해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하여 간호사들이 그런 것도 모르냐는 반응을 보일 때는 너무나 무안하고 눈치가 보여서 다음부터는 질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호사들의 인계시간에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인계하는 것을 옆에서 관찰했을 때 간호사님들이 랩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끔씩 아주 기초적인 용어는 들렸지만 거의 90%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병동간호사들의 태도는 참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간호사들의 태도로는 따뜻한 환영,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준 지지적인 태도, 자상한 배려, 그리고 체험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 등이 있었다.

이론과 실무의 괴리에 직면함

학교에서 기본간호학 기초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병원현장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간호기술의 이론과 실체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당혹스러워했다. 이를테면 침상만들기, 환자간호 후 손씻기, 환자이동법, 활력징후 측정, 무균술, 투약, 간호사들의 복장 등에서 학교에서 교수를 통해 중요하다고 배운 원칙들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돈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병동간호사들이 활력징후 측정시 청진기를 대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 무균술을 지키지 않는 것, 사용했던 주사기를 바늘만 교환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것 등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무균적인 처치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익혔지만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느슨한 모습이 보였어요 무균영역 위로 손을 가로지르고 한번 찔렀던 바늘로 다시 찌르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참여자들은 피교육생 입장이어서 원칙에 위배되는 간호행위를 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었으며,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간호사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더욱 난처한 것은 같은 병동 내에서도 간호사들마다 기본간호술에 대한 원칙이 달라서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눈치를 보게 되고 갈등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이러한 괴리를 겪으면서 간호사들이 원칙대로 할 수 없는 바쁘고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기도 하였으며, 이론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였다.

“제가 실습했던 병동은 기능적 간호를 실시하는 곳이어서 한 명의 액팅간호사가 거의 60명이 넘는 환자를 봐야 했고 다른 업무가 기다리는 상태에서 매번 손을 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매번 손을 씻으면 간호사 손의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하는 손씻기이지만 현실에선 그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임상현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참여자들이 느끼는 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가서 본 병원 이미지나,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부인으로서 느꼈던 추억 속의 장면들이었으며, 혹은 소설이나 TV 드라마 등에서 보았던 병원의 모습들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간호학을 전공하면서도 병원은 웬지 웃음이

없는 혹은 웃어서는 안되는 삭막한 곳, 약 냄새가 가득하고 주사기가 널려있는 무서운 곳, 인간관계가 매우 경직된 곳, 그리고 건강한 자신과는 달리 통증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등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병원에 가면 삭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만 있고 병원 안에서는 웃음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참여자들은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현장실습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 환자와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인력들을 접하면서 그 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병원에 대한 막연함과 불확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병원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며, 환자들 역시 건강문제만 있을 뿐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동안 참여자들이 가져왔던 병원에 대한 두려움은 간호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유능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도 웃을 일은 많았고 그렇게 웃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밝은 환자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본간호술에 익숙해짐

기본간호학 실습실에서 학생들끼리 역할을 바꾸어가면서 기본간호학 기술을 습득하고 나간 참여자들에게 병원과 환자들은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정상범위 내에서 활력징후나 혈당을 측정했던 때와는 너무나도 상이했고, 다인용 병실은 보호자들도 많고 소음도 많은데다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활력징후를 측정할 때 잘 들리지가 않았고 측정속도도 느렸다. 그리고 환자이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환자와 침대가 무거워서 처음에는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시행횟수가 거듭되고 다양한 환자들을 체험하게 되는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수행속도도 빨라졌으며, 힘든 환경에서 능숙하게 해내는 자신에게 대견함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신분이어서 참여자들은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병동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욕창간호, 유치도뇨관 삽입, 정맥주사 등의 간호술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본간호술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기본간호 기술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차로 환자들을 대할 때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낯선 병원환경에도 조금씩 적응

을 해나가면서 3학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혈당측정을 할 때는 손의 살이 두껍지 않아 금방 피가 나서 혈당을 재기 쉬웠는데 환자들은 손의 살이 두꺼운 분들이 많아서 피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 찌른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확실히 현장실습을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에 얼핏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앞으로 배울 것도 미리 한번 눈으로나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내년엔 실습을 나가게 되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참여자들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면서 유능하고 실력있는 간호사가 되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들이 근무하게 될 병원환경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며, 간호사가 하는 일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간호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자신이 환자들에게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어차피 국가고시 보기 전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솔직히 지금까지 학과공부를 진지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정확한 간호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면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봐야하는 환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학 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호학 전공학업,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외국어능력, 그리고 유연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격과 태도함양 등이었다.

“실습을 해보니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공공부도 열심히 해서 환자들이 질문하면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임상에서는 병원관계자, 의사,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므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간호전문직에 대한 구체화

참여자들은 4주간의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고 생각만으로 상상해왔던 간호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았던 간호현장이 매우 복잡한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간호대상자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필요로 됨을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숙련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존경스럽다고 느꼈다. 참여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간호사들의 특성으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동시에 유능하게 수행함, 환자에게 대한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찰과 경청 및 상담, 철저함과 책임감, 부지런하고 성실함, 환자들에게 유연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대처함,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을 메워가려는 노력’ 등이 있었다.

“사실 전에는 간호사는 의사 지시대로 약주고 주사넣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을 바쁘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연하게 환자를 간호해 주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환자들의 모든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직 간호사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울러 참여자들은 간호는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직에 대한 직업의식과 소명이 없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이라는 사실도 체험하면서 장래 멋진 간호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느꼈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진로모색에 도움이 됨

참여자들은 배정받은 간호부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병동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동안 참여자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예비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는데 작용했던 원동력은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기대감, 간호학 교수들을 통하여 알게 된 간호직에 대한 비전, 졸업 후 높은 취업률에 대한 막연한 설레임, 그리고 종교적 이유 등이었다. 즉,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면 전문직 여성으로써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과 함께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간호학과를 정하는 과정에서 제 뜻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이 컸어요 저는 딱히 가고 싶었던 과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저도 간호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실습

을 하면서 간호사가 될 제 모습이 기대되오”

그러나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의 간호를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적성과 희망하는 간호직종과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였다. 물론 4주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이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실질적인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방향설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가 되면 내가 무슨 과를 가야되나 이런 계획같은 것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습을 하면서 제 적성을 파악한 거 같아요 중환자실은 환자들이 거의 말을 하지 못해서 의사소통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내과병동이 바쁘기는 해도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논 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을 간호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여 학생의 잠재력 개발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수행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한다(신은주, 2008). 하지만 현재 기본간호 실습교육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자율학습, 문제중심학습, 표준화 환자학습방법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실습실에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후 임상 상황에서 기본간호 술기를 실습하는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Bandura(1993)의 자기효능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 및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정도에 따라 바람직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신은주(2008)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간호학생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게 하며,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함으로써 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기본간호수술 점수를 높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 변화와 간호학생들이 현장실습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현장실습 교육 전 자기효능감은 3.88점, 후에는 3.7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17문항 중 15문항은 현장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한다’의 항목은 현장실습 교육 후 유의하게 낮아졌고, ‘나는 일을 해내는 내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는 현장 실습 교육 후 유의하게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학생

들이 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희(2008), 황성자(2006)의 연구에서의 3.52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후 평균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 임상현장을 경험하면서 본 질적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이질감, 소외감 그리고 무척 하찮게 느껴지고 위축되는 느낌 등 현장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양진향(2005)의 연구에서 기본간호 영역의 첫 임상경험에서 학생들은 병원 환경의 경계가 모호하고 낯선 환경에서 오는 충격, 의료인이나 환자의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 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간호지도자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규간호사들도 기본간호술 수행능력 및 자신감이 낮아 간호업무에 임하기 전에 막대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재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본간호술을 비롯한 지식과 태도교육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정임, 2003). 박선남과 이선경(200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태도가 적극적이며 이로 인해 기본간호수술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기본간호실습교육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간호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신의 장·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에 의해 얻어진 성취경험, 훌륭한 임상지도자 모델이 수행한 행동관찰, 타인의 언어적 설득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기본간호 실습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70$ 로 약간 낮은 편이라 도구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가 성인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도구인데 이를 질환이 없는 20대 초반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되면서 신뢰도가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학생들은 학교 실습실에서 기본간호학 기술을 배우면서 임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미래에 자신이 일하게 될 간호현장을 근거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본간호학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어 했다. 아울러 자신이 간호사로서 적성이 맞는지 현장실습교육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2학년 간호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의 범주는 ‘무지한 이방인’, ‘이론과 실무의 괴리에 직면함’, ‘임상현

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기본간호술에 익숙해짐',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구체화', '진로모색에 도움이 됨' 등으로 부정적인 경험도 일부 있었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무지함과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양진향(2005)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기본간호 현장실습 초기에 두려움, 막막함, 불안감이 오고, 구체적인 간호활동을 관찰, 수행하게 되면서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갈등을 경험한다는 결과와 Sharif와 Masoumi(2005)의 임상실습경험 연구에서 실습 초기 임상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보고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Löfmark와 Wikblad(2001)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지식의 부족함과 간호실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결핍되었음을 느꼈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실습기간동안 교수와 임상지도자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과 통제가 필요하며, 나아가 간호학생에게는 교수, 임상지도자 및 실습동료를 포함한 공동의 지지체계 구축과 함께 대인관계술, 상황대처기술 등 간호학생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양진향, 2005).

4주간의 병원 현장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그 동안 막연하게 상상하던 간호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병원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벗어나 자신이 장래에 일하게 될 공간이라는 주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양진향(2005)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1주일간의 기본간호 임상실습을 하면서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배우면서 자신의 미래 간호상을 그려본다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인데, 양진향(2005)은 임상에서의 간호사 모습이 간호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에 학교-병원 협력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임상과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유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체계적인 실습경험, 이론과 실무의 연계와 임상간호 역할모델경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udgen & Gamroth, 2008).

본 연구대상자들은 또한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서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간호전문직에 대해 구체화되면서 진로모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양진향(200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새롭게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서 간호사들이 어떠한 간호현장에서든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

장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기본간호학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예비간호사로서 질 높은 임상실무 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상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다(남미라, 2005). 따라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은 기본간호술에 익숙해지고, 임상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간호전문직에 대한 구체화와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기본간호 현장실습 후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이다. 단일군 전후설계로서 대상자 수가 적고, 교육환경 여건이 유사한 학생들의 경험이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임상상황에 보다 잘 적응하고, 대상자를 충분히 이해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훈련으로서 실제성과 상황성이 강조된 기본간호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충청 지역에 소재한 S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20명이었다. 수집된 양적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선택한 사유는 '기본간호 술기의 향상을 위하여'가 5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임상(병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가 35.0%,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가 10.0%로 나타났다.
-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을 시행한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낮아졌다($t=3.52, p=.003$).
- 2학년 간호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의 범주는 '무지한 이방인,' '이론과 실무의 괴리에 직면함,' '임상현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기본간호술에 익숙해짐,' '학업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구체화,' '진로모색에 도움이 됨' 등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은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간호학생들의 기본간호술기 향상과 전문직으로서 자기개발과 학업성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비교적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좀 더 세분화되고 가이드된 기본간호 현장실습을 임상현장과 연계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기본간호 현장실습에서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셋째,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종임, 임난영, 김금순 (2003).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본간호학 실습 기자재 표준안 개발. *기본간호학회지*, 10(3), 415-426.
- 김혜숙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2), 64-76.
- 남미라 (2005).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웹기반 학습의 효과: 무균술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2(3), 290-297.
- 박선남, 이선경 (2008).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 수기 수행능력의 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15(1), 6-13.
- 변영순 (2005). 4년제 간호대학(과)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69-176.
- 신은주 (2008).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기본간호수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5(3), 380-386.
- 안은경 (2000).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성과 구조모형 구축*.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전.
- 양진향 (2005). 간호학생의 기본간호 임상실습 경험. *질적 연구*, 6(2), 51-64.
-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3), 327-335.
- 윤은자 (1999).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비디오 녹화학습의 효과연구-근육주사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1), 86-96.
- 이경희 (2001). 기본간호학의 문제중심학습 적용방안(2)- Reflective Journal을 통한 수업평가를 중심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28(2), 183-196.
- 이숙희 (2008).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5(4), 539-547.
- 이영휘 (1994). 효능기대증진프로그램이 자기효능과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본태성 고혈압환자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7(2), 212-227.
- 정정임 (2003). *수간호사의 임상실습교육 체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미영 (2010).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2), 239-248.
- 조복희, 고미혜, 김순영 (2004).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웹기반 학습이 유치도뇨술 수행능력, 지식,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1(3), 248-255.
- 주민선, 황윤영, 박창승 (2006).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모듈개발 및 적용. *기본간호학회지*, 13(2), 182-189.
- 한경순, 박은희, 조주연 (2000). 간호대학생들의 기본간호실습 태도에 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2), 293-303.
- 홍승희, 권영숙 (2010). 자율실습 지도방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 실습성적, 자신감, 만족도. *계명간호과학*, 14(1), 1-10.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Bandura, 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udgen, C., & Gamroth, L. (2008). An overview of practice education models. *Nurse Education Today*, 28, 273-283.
- Cope, P., Cuthbertson, P., & Stoddart, B. (2000). Situated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4), 850-856.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3rd ed.). New York: McGraw-Hill.
- Löfmark, A., & Wikblad, K. (2001). Facilitating and obstruction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1), 43-50.
- Mahat, G. (1998). Stress and coping: Juni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 *Nursing Forum*, 33(1), 11-19.
- Patton, M. Q. (2001).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Newbury park, CA: Sage.
- Sharif, F., & Masoumi, S. (2005).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BMC Nursing*, 4(6), 1-7.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An Evaluation of the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by Triangulation Method

Kim, Chunmi¹⁾ · Kim, Eun Man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ivenes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s in clinical settings. **Method:** This study adopted the triangulation method. Using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this study identified differences in self efficacy between pre and post clinical practice. The study was also designed to describe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by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1) All students experienced bedmaking, BST check, V/C check, positioning, transferring, assisting with moving and positioning, and ROM. Sixty percent of students experienced giving oral care, and forty percent experienced shampooing patient's hair. 2) While the mean score of self efficacy was 3.88 in the pre-test, it decreased to 3.76 in the post-test. They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3) Seven categories were elicited from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on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which were 'ignorant stranger', 'fac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solving the uncertainty of clinical setting', 'getting used to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motivated by a desire to study and self-development', 'understanding the nursing profession's job', and 'being helpful for the future career'. **Conclusio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is a useful strategy that improves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motivates student's self-development.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 Man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100 Kalsan-ri, Tangjeong-myeon, Asan, Chungnam 336-708, Korea
Tel: 82-41-530-2756 Fax: 82-41-530-2767 E-mail: emkim@sunmoon.ac.kr